

리살레-이 누르 전집

스물두 번째 말씀

베디웃자만 싸이드 누르시 지음
민웅기 옮김

22.Söz 1.Makam
Korece Tercümesi

Neşreden:

İHLÂS NUR NEŞRİYAT

Sanayi Ticaret Ltd. Şti.

Sanayi Cad. Sanayi Han A-Blok

No: 23/69 Ulus – ANKARA

Tel: +90(312) 324 27 09 Faks: +90(312) 309 13 05

Web:www.nur.web.tr

e-mail:nur@nur.web.tr

ISBN 978-975-8785-78-0

Ankara – 2007

© İHLAS NUR NEŞRİYAT

파티, 라마잔 그리고 사임 씨를 만난 지도 어느덧 9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가을학기에 조한혜정 교수님의 『지구촌 시대의 문화인류학』 과목을 수강하다가, 조 활동을 통해 이 분들을 처음 알게 되었지요. 당시 저희 조는 ‘이슬람’을 화두로 삼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자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좋은 결실을 맺는데 이 분들께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이드 누르시(1837-1960)는 근·현대 과학이 전파되면서 이슬람이 위기를 맞게 되자, 방대한 저작을 통해 물질주의와 자연주의 그리고 무신론을 극복하고 신앙을 재정립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한 터키의 종교 사상가입니다. 꾸란에 기반한 그의 저작들을 묶어놓은 결과가 리살레-이-누르(Risale-i Nur) 전집입니다. 이 전집은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인 『여러 말씀들(The Words)』 중 22번째 말씀을 번역한 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소책자입니다.

이 22번째 말씀을 번역할 때는 터키어 원본과 영어 번역본을 모두 참고하였습니다. 파

티 형과 라마잔 형이 기존의 영어 번역본을 터키어 원본에 맞게 고쳐 저에게 보내면, 저는 기존의 영어 번역본과 수정된 영어 번역본을 대조하면서 한글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 텍스트는 다시 파티 형과 후세인 형에게 넘어가 그 정확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이렇게 검증 받은 텍스트를 제가 좀더 매끄럽게 다듬는 것을 마지막으로 22번째 말씀의 번역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기에 시행 착오도 종종 있었고, 길지 않은 분량임에도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터키어 원본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번역된 한글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했는데, 이 두 가지 노력이 서로 충돌할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사이드 알 누르시는 이 ‘말씀’을 집필하면서 비유적이면서도 유려한 문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한글로 번역하면 극히 어색해지거나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의 몇몇 부분은 독자 여러분께 조금 이상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슬림도 크리스천도 불교도도 아닙니다

다. 별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이 세계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힘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느낌을 갖고 살아갈 뿐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번역을 시작했느냐고 혹자가 묻는다면, 저는 지적 호기심에서라고 답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진지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번역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학생의 특권이자 흥미진진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번역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흔히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번역 작업을 함께한 파티, 라마잔, 사임 그리고 후세인 씨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학기에 끊임없이 지적인 자극을 주셨던 연세대학교 조한혜정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이 졸저에 실어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길을 택하든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부모님과 제 동생 선기에게 이 자그마한 책자를 바칩니다.

2007년 5월 24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년 민웅기

리쌀레이 누르 전집의 저자

이 책은 위대한 학자인 베디웃자만 싸이드 누르시 (Bediuzzaman SAID NURSI)의 전 생애를 다룬 최초의 영문 전집으로서 금세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상가이자 꾸란의 해설자인 베디웃자만의 이슬람을 위한 필생 작업과 노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역사적 사건들의 개요와 함께 그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첫 부분은 터키 오스만 제국을 위한 베디웃 자만의 청년시절의 진취적이고 학구적인 노력, 특히 교육, 헌법 분야와 이슬람의 통일에 대한 그의 노력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은 베디웃 자만이 겪은 말 없는 고난의 시간들과 리쌀사레이 누르라고 알려진 꾸란에 대한 주석 그리고 리쌀사레이 누르 운동의 발전에 대해 쓰여있습니다

스물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백성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고자 하심이라 (꾸란 14:25)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에게 비유하였나니 이로 하여 그들이 숙고하도록 함이라 (꾸란 59:21)

어느 날, 두 사람이 물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들은 의식을 잃었고, 눈을 뜨니 신기한 세계에 와 있었다.

그곳은 완벽한 질서가 잡혀있었고 마치 나라 같기도 하고 도시 같기도 하며 궁전 같기도 한 곳이었다. 그들은 완전한 경이로움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곳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세계로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나라로 보이고 또 다르게 보면 완벽한 도시로 또는 아주 훌륭한 세계를 담은 궁전으로 보였다. 그들은 이 신기한 세계를 돌아다니며 구경했다. 그들은 그 곳을 관찰하고 그 곳의 창조물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신기한 세계에는 반드시 관리인이, 질서 있는 나라의 원수가, 완벽한 도시의 주인이, 예술적인 궁전을 지은 장인이 있을 거라네.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분이 바로 그 분이라고 여겨지니 우리는 그 분을 알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네. 우리가 그 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를 돕겠는가? 우리가 이 곳의 창조물들의 언어도 모르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무력한 그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또 이 거대한 세계를 하나의 국가, 도시, 그리고 궁전처럼 만드시고 그 안을 놀라운 것들로 가득 채우시고 여러 가지 장식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교훈을 주는 기적들로 치장하신 분이 당연히 우리와 여기에 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네. 우리는 그 분을 알고 그 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네.”

다른 이가 말했다.

“나는 자네가 말하는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도, 그런 분이 이 세상을 혼자서 지배하리라고도 믿지 않네.”

다시 첫 번째 친구가 말했다.
“우리가 그 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분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만약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화를 입는다면 그 화는 매우 클 것이네. 반면에 그 분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만약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은 막대할 것이네. 그러므로 그 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지각이 없는 것이지.”

그 무신경한 친구가 말했다.
“난 그 분을 생각하지 않아야만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네. 또한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에 의한 혼란스러운 것들이며 그것들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지. 내겐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총명한 자가 말했다.
“자네의 고집은 나와 다른 이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일세. 때때로 예의를 모르는 사람 하나 때문에 한 나라가 송두리째 화를 입기도 하지.”

다시 무심정한 친구가 맞받아쳤다.
“이 거대한 나라에 단 한 분의 주인이자 예술가가 있다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이던지 아니면 내게 상관하지 말게.”

그에 대한 답으로 총명한 자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고집은 정신병에 가까우니, 자네 때문에 우리와 이 나라가 화를 입을 거야. 내가 자네에게 열 두 개의 증거를 제시하겠네. 궁전과 같은 이 세계, 도시와 같은 이 나라에는 단 한 분의 장인이 있고 그 장인은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단 한 분이시지. 어떤 관점에서든 그 분에게는 부족한 점이 없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분께서는 우리와 만물을 보시고 그 말을 들으신다네. 그 분의 일들은 모두 기적이며 놀라운 것들이지. 눈에는 보이지만 그 언어를 우리가 모르는 창조물들은 모두 그 분의 관리를 받네.”

첫 번째 증거

와서 모든 곳을 보게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보게나! 모든 일들에는 숨겨진 손이
 작업 중이네. 왜냐하면, 보게나, 힘도 없는 1
 그램의 씨앗이 수천 킬로그램이나 되는 짐
 을 들어올리기도 하고 단 한 톨의 의식이 없
 는 것들도² 실로 현명한 일을 해내지. 이것
 의 의미는, 그 사물들이 저절로 일하지는 않
 는다는 거야. 그것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드
 는 숨겨진 권력을 가지신 분이 있지. 만약 이
 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보
 는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은 불가사의한 기적이
 어야 하네.

두 번째 증거

와서 이 모든 평야들, 들판들, 그리고 보
 금자리들을 꾸미는 것들을 주의 깊게 보게나!
 모든 것들에 그 숨겨진 분을 말해주는 흔적이
 있어. 마치 서명이나 인장과 같이 그 분에 대

¹ 나무를 머리 위에 이는 씨앗을 가리킨다.

² 포도 덩굴과 같은 섬세한 식물들은 홀로 기어오르지
 못하고 과실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다른 나무들에
 우아한 손으로 기대야 함을 말한다.

한 소식을 전하고 있네. 여기, 눈앞에 있어!
보게나! 1그램의 솜으로 ³ 무엇을 만드시는
지. 보게나! 얼마나 많은 양모와 무명과 꽃무
늬 옷감들이 거기서 나왔는지.

보게나! 얼마나 많은 달콤한 사탕과 동그
란 사탕들이 만들어지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
수천 명이 입고 먹어도 충분하네.

그리고 보게나! 그 분께서는 한 줌의 철과
흙과 물과 석탄과 동과 은과 금으로 육신을 ⁴
만드셨다네. 보고 또 꿰뚫어보게나! 그러니까,
이 무지한 친구야, 이러한 일들은 그 분 고유의
것이며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이 그 분의 기
적적인 힘 아래 있으며 그 분의 모든 의지에
복종하고 있다네.

³ 종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한 톨과 같은 아편 씨앗
이나 1그램에 불과한 자두의 과심(果心), 또는 멜론 씨
앗은 양모보다도 더 섬세하게 짜인 이파리들, 무명보다
도 더 하얗고 노란 꽃들, 그리고 사탕보다도 달고 통조
림보다도 더 감미롭고 맛있으며 귀여운 과일들을 자비
로움의 보물창고로부터 가져와 우리에게 바친다.

⁴ 원소에서 동물의 육신을 창조하고 정자에서 생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세 번째 증거

와서 이 움직이는 예술품들을 ⁵ 보게나!
그 각각은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거대한 궁전의 작은 모조품이기도 하지.

이 궁전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 조그마
한 움직이는 기계들 속에도 존재한다네.

이 궁전을 만든 이가 아닌 다른 이가 와서
이 신기한 궁전을 작은 기계 속에 담는다는
것이 가능이나 한가? 또한 상자 크기의 기계
안에 세계 전체가 담겨 있는데도, 그 안에 무
의미하거나 우연한 것이 있다는 게 가당하기
나 한가?

즉, 자네의 눈에 보이는 많은 숨씨 있는
기계들 각각은 그 숨겨진 분의 인장과 같은
것이네. 더욱이 그것들은 그 분의 사자(使者)
이자 선언(宣言)과도 같지.

⁵ 이것은 동물과 인간을 지칭한다. 동물은 이 나라
의 작은 색인(索引)과도 같고, 인간은 우주를 축소
시킨 그림과도 같다. 이 나라에 있는 것이라면 대
개 그 표본이 인간 내에도 있게 마련이다.

네 번째 증거

오, 고집스러운 친구여! 오게나. 내가 더욱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네. 보게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일들과 사물들이 변해왔고, 변하고 있으며,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네.

생명이 없는 물체들과 감정이 없는 상자들 각각은 마치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지배자의 형상을 띠고 있음에 주목하게나.

우리 곁에 있는 이 기계를 ⁶ 보게나; 그것은 마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의 장식과 작동에 필요한 필수품과 재료들이 먼 곳에서 서둘러 오네. 저쪽을 보게

⁶ 풍성한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가리킨다. 이 나무들은 마치 가냘픈 가지들에 수백 개의 작업대와 공장들을 품고 있는 듯이 놀라운 잎사귀와 꽃, 과일들을 엮어내고 장식하며 요리해내어 우리에게 전해준다. 야자수나 플라타너스 같이 장대한 나무들은 자신들의 작업대를 둘 하나 위에 세우고 작업을 계속하곤 한다.

나; 저 생명이 없는 물체는⁷ 단 한 번 신호를 보냄으로써 가장 큰 폴체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며 자기 자신의 작동에 이용한다네. 같은 방법으로 좀 더 유추해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전체에 있는 각 창조물들을 통제하고 있는 셈이지.

만약 자네가 이 숨겨진 분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네는 이 나라에 있는 돌, 흙, 동물 그리고 인간과 비슷한 피조물들 속에 있는 그분의 숨씨와 예술, 그리고 완벽함을 그것들 스스로에게 돌려야 할 것이네. 그렇다면 자네가 믿기 어렵다고 여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단 한 분 대신 그 분과 닮은 몇 십억 개의 존재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이것들은 서로 반대되면서도 비슷하고 서로를 포함하기도 하여 어디에서도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며 질서를 어지럽히지도 않아야 할 것이네. 하지만 한 나라에 두 개의 손길이 관여한

⁷ 곡식, 곡물의 낱알들과 날파리의 알들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파리 한 마리가 느릅나무 잎사귀에 알들을 놓아두었다면 순간 그 거대한 느릅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알들에게 어머니의 자궁이자 요람 그리고 꿀로 가득 찬 가게로 변한다. 이리하여 열매를 맺지 않는 느릅나무는 살아있는 과일들을 낳게 된다.

다면 당연히 혼란이 야기되지. 마치 한 마을에 두 명의 우두머리가 있거나, 한 도시에 두 명의 시장이 있거나 아니면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다면 그 결과 대혼란이 오게 되는 것과 같지. 그렇다면 한 명의 무한한 절대적 지배자는 어떤가?

다섯 번째 증거

오, 의심많은 친구여! 와서 이 거대한 궁전을 수놓은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나. 이 도시의 모든 장식들을 보고 이 나라 전체의 모습을 구경하고 이 세계 전체의 예술에 대해 사색해보게나! 여기 있군!

만약 이것들이 끝없는 기적과 솜씨를 가진 그 숨겨진 분의 펜에 의한 것이 아닌, 의식이 없는 이유들과 눈먼 우연과 귀먹은 자연의 덕으로 돌린다고 하세.

그렇다면 각각의 돌들과 풀들이 정말 훌륭한 세공인이자 정말 놀라운 작가여야 한 글씨 안에 천 권의 책을 써넣을 수 있고, 한 장식품 안에 몇 백만 종의 예술을 넣을 수 있을

것이네. 이 돌들에 새겨진 것들을 보게나⁸. 각각의 것들에는 궁전 전체에 수놓인 것들이 있고 도시 전체를 배열하는 원칙들이 있으며 나라 전체를 조직하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다네. 그러므로 이렇게 새겨 넣는 일이 나라 전체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경이로운 것이고 따라서 각각의 장식품과 예술품들은 그 숨겨진 분을 선언하는 것이자, 그 분의 인장인 것이지.

문체가 글쓴이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술적인 세공품이 그 세공인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법인데, 어떻게 거대한 책을 글자 하나에 써넣을 수 있으며 한 세공품 안에 수천 가지로 세공을 할 수 있는 세공인이 자신의 책과 세공품을 통해 알려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⁸ 창조수(創造樹)의 결실인 인간과, 나무의 프로그램과 색인을 지니고 있는 과일들을 말한다. 권세의 펜이 세계라는 거대한 책에 써넣은 것이 무엇이든, 인간의 특성 안에 그 핵심이 쓰여 있다. 또 산(山)만한 크기의 나무에 운명의 펜이 써 넣은 것이 무엇이든, 손톱만한 크기의 과일에도 그것이 삽입되어 있다.

여섯 번째 증거

와서 이 넓은 들판으로 나가보세⁹. 여기, 평원 위에 높은 산이 하나 있군. 주변을 둘러 볼 수 있게 그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네. 또 모든 만물을 가까이 오게끔 하는 좋은 쌍안경도 하나 갖고 가도록 하세. 왜냐하면 이 신기한 나라에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 마음에 전혀 다가오지 않던 일들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네. 여기를 보게! 산, 들판, 도시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네. 그 변화가 또한 어떠한가? 몇 백만 가지의 사건들이 극히 정돈된 모습으로 얹히면서 변화하지. 마치 여러 가지 옷감들이 서로 얹히며 짜이는 것처럼,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군. 보게! 우리가 잘 알고 우리에게 친숙한 꽃과 비슷하게 생긴 사물들이 사라져 버렸군.

⁹ 봄, 여름철의 대지를 가리킨다. 이는 몇 백, 몇 천 종의 창조물들이 모두 서로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대지에 기록되어 있는 데서 연유한다. 그 창조물들은 실수나 오류 없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변화한다. 그 자비로운 분이 차리신 몇 천 개의 상들이 퍼져나가고, 사라지며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 나무들은 제각기 쟁반을 들고 있는 이들과 같으며, 각각의 정원은 항아리와도 같다.

그것들과 특성은 비슷하지만 모양이 다른
사물들이 이미 그 자리에 질서 있게 들어서
있네. 이 들판과 산들은 각각 하나의 종잇장
과 같고, 그들 속에서 수백, 수천 권의 각기
다른 책들이 쓰이고 있지. 게다가 그 책들은
하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쓰이고 있네. 따
라서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은 백
번을 고쳐 말해도 불가능하다네.

그렇네, 지극히 예술적이고 신중하게 이루
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천 번을 고쳐 말해도 불가능하네. 그래서 그
일들은 스스로를 드러낸다고보다는 자신들을
창조한 예술가를 드러내지. 또한 이들을 실행
하는 분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분이서
서 어떤 일이라도 그 분께는 어렵지 않네. 천
권의 책을 쓰는 것도 그 분께는 글자 하나를
적는 일만큼이나 쉽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
보게. 그 분께서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도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 모든 것에 걸맞은 호
의를 누구에게나 친절히 베푸시네. 그리고 그
분은 병풍과 문을 너그럽게 열어서 모든 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시지. 또한 그 분께
서는 후하게 상을 차리셔서 이 나라의 사람들

과 동물들에게 하사품을 한 쟁반 가득 내려주신다네. 이 하사품은 각 개인과 무리에게 특별하면서도 알맞은 것들이라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사건들 중에 우연한 사건이 있다든지, 헛되고 쓸모가 없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손이 그 사건들에 개입한다든지, 그들의 장인이 전능하시지 않다든지, 또는 모든 것이 그 분께 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있겠는가? 오, 나의 친구여, 여기에 반대할 핑계를 감히 대 보게나.

일곱 번째 증거

오 친구여, 와 보게! 이 하찮은 것들을 내 버려 두고, 궁전처럼 생긴 이 신기한 나라를 이루는 부분들이 서로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주의를 돌려 보세나. 여기를 보게! 이 나라에서는 질서와 통일성이 있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네. 또한 변화가 널리 일어나고 있지. 이 궁전 안에 존재하는 바위, 대지, 나무 등 모든 것들은 마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처럼 이 나라의 통일적인 질서를 지키고 그에 맞게 조화롭게 활동하지. 서로 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들도 서로를 돕기 위해 길을 서두르곤 한다네.

여기, 신기한 여행자단 ¹⁰ 이 보이지 않는 저편에서 나타나 다가오고 있군. 그 탈것들은 나무와 식물, 그리고 산들을 닮았네. 그들은 제각기 음식을 한 쟁반씩 머리 위에 이고 있어. 여기를 보게; 그 탈것들은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 동물들이 먹을 것을 날라오고 있네. 또 보게. 저 커다란 전등 ¹¹ 이 빛을 비추는데, 그 전등은 저 음식들을 모두 잘 익혀 주지.

그래서 여기서 요리되는 각각의 음식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고작 실 ¹² 하나에 그 전등을 향해 매달려 있네. 이 쪽을 바라보게. 저 의지할 데 없고 여위어 무력한 작은 동물들을 보게나. 그 동물들의 머리 앞에 품미 있

¹⁰ 이 여행자단은 모든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나르는 식물과 나무들이다.

¹¹ 저 거대한 전등은 태양을 가리킨다.

¹² 또한 이 실과 실에 매달려 있는 음식은, 가느다란 가지와 나무에 매달린 맛있는 과실을 말한다.

는 자양분으로 가득 찬 작은 펌프 한 쌍¹³이 마치 두 개의 분수처럼 붙어 있네. 그 힘 없는 창조물은 그저 그 펌프를 입에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요약하자면: 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서로를 바라보고 돕는다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 곧 서로와 손을 잡지. 상대방의 과업을 끝내기 위해 그들은 어깨를 맞대고 합심하네. 모든 것은 같이 일하고, 서로를 돕네. 만물을 이와 비교하면, 그 끝을 셀 수 없지. 그러므로 이 모든 정황이 2에 2를 곱하면 4가 되는 것만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만물이 이 신기한 궁전의 장인, 또는 이 놀라운 나라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는 것이네. 모든 것은 그 분을 위해 일하네. 어떤 의미에서 만물은 그분의 지휘를 받는 군사인 셈이네. 모든 것은 그분의 힘을 통해 돌아가네. 모든 것은 그분의 명령으로 움직이네. 그 분의 지혜를 통해 만물은 질서를 부여 받는다네. 또한 만물은 그 분의 관대함으로 인해 다른 사물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지. 그 분의 자비심

¹³ 그리고 한 쌍의 작은 펌프는 어머니의 젖을 말한다.

은 만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서둘러 돕게 하네. 오, 친구여! 감히 여기에 반론을 제기해 보게!

여덟 번째 증거

이리 오게, 나만큼 자신이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무지한 친구여! 자네는 이 찬란한 궁전의 주인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군! 하지만 모든 것이 그 분을 보여주고, 그 분을 가리키고, 그 분을 증언하고 있네. 이 모든 것들의 증언을 어찌 부인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궁전도 부정하고, 이 세계도 이 나라도 없다고 말하고, 자네 자신도 부정한 다음 사라져버리게! 그러지 않겠다면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을 듣게나! 여기를 보게! 이 궁전 안과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재료와 그 보고(寶庫)들이 있네¹⁴. 이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것이 이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지.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 재료들이 누구의 소유든,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도 또

¹⁴ 여기서 여러 재료와 그 보고(寶庫)들은 공기, 물, 불, 흙을 지칭한다.

한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네. 논밭이 누구에게 속하든 간에, 그 수확도 그분의 것이네. 그리고 바다를 가진 이가 누구든, 그 안에 있는 사물은 모두 그분의 것이라네.

또 보게, 이 직물과 저 수 놓인 천은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네. 저 재료를 가져와서 준비하고, 또 실로 뽑아내는 분은 명명백백하게 그 분이네. 왜냐하면 그런 일에는 다른 이들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모든 짜인 예술품은 그 분 고유의 것이네. 또한 보게! 모든 종류의 직물과 작품들이 이 나라 방방곡곡에 있네. 모든 종류가 생산되어, 함께, 서로를 포함하면서, 한 가지의 방식으로, 같은 때에 만들어지고 서로 얹히고 있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모든 것이 단 한 분의 작업이며 한 분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같은 때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이런 협력과 호응은 불가능할 것이네. 그렇다면 이 예술적인 작품 각각은 어떤 의미에서 그 숨겨진 분을 선전하고 알린다고 할 수 있네.

꽃무늬가 수놓인 옷감, 정교한 기계, 그리고 맛있는 한 입의 음식 하나하나가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의 도장이자 봉인이고, 표상이자 서명파도 같은 것이네. 그리고 그 각각은 “내가 그 누구의 작품이든, 내가 있는 상자와 상점들 또한 그 분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수공예품들은 제각기 “나를 수놓은 분이 누구든, 내가 수놓고 있는 천 또한 그 분의 것이다”라고 말하네. 또 모든 맛있는 한 입의 음식은 “나를 만들어서 요리하는 분이 누구든, 내가 들어있는 큰 냄비 또한 그 분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네. 그리고 기계들이 제각기 말하기를, “나를 만들어낸 분이 누구든, 그 분은 나라에 퍼져 있는 나와 같은 기계를 또 만드셨으며, 나라 방방곡곡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다. 이는 그 나라를 소유하는 분 또한 그 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궁전의 주인이 누구시든 간에, 그 분이 우리의 주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라에 속한 탄띠나 단추 한 개의 주인이 되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생산하는 공장을 먼저 소유해야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네. 그렇지 않은 자는 “그것은 나라의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곧장 처벌을 받게 되네.

요컨대 그들의 주인은 곧 온 나라를 소유하는 그 분이네. 온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서로를 닮고 오로지 하나의 인장을 담은 예술품들처럼, 이 나라에 퍼져 있는 예술적 수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분의 숨씨를 보여주네

자, 나의 친구여! 이 나라, 또 저 웅장한 궁전에는 동일함의 표식과 하나됨의 각인이 있네. 어떤 사물들은 동질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포괄하지. 그리고 어떤 사물들은 그 수가 많기는 하나, 서로 비슷하면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드러내지. 이 동질성은 바로 그 유일하고 동질적인 분을 보여준다네. 따라서 그 사물들의 장인, 주인, 그리고 제작자는 한 분이 되어야만 하네.

또,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서 나오는 저 굵은 밧줄¹⁵에 주의를 돌려보게. 수천 개의 밧줄이 그 굵은 밧줄에서 뻗어 나오고 있지. 그리고 밧줄 끝을 보자면, 다이아몬드, 장식,

¹⁵ 굵은 밧줄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가리키고, 수천 개의 밧줄은 그 가지들을 나타낸다. 밧줄 끝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표식, 그리고 호의(好意)란 여러 가지 꽃과 과일을 지칭한다.

호의(好意)와 선물이 매달려있네. 그 분께서는 모든 이에게 알맞은 선물을 주고 계신다네. 그런 분을 인정하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기이한 장막 뒤에서 창조물들에게 신기한 호의와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분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자네는 아는가 모르겠군. 만약 그 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자네는 “이 밧줄들은 끝에 매달린 다이아몬드와 선물들을 스스로 나누어주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걸세.

그렇다면 그 밧줄 하나하나가 왕이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겠지. 설사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바로 우리 눈 앞에서 그 밧줄들을 꼬고 선물을 달고 있음에도 말일세.

그러니 이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보다는 그 기적을 보여 주는 분을 보여준 다네. 만약 자네가 그 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물을 부정하는 셈이 되어 한낱 동물보다도 일백 배는 낮은 곳으로 몰락하게 될 걸세.

아홉 번째 증거

이리 오게, 이성(理性)이라곤 없는 친구여!
자네는 이 궁전의 주인을 인정하지도, 인정하
고 싶어하지도 않는군.

그 이유는 바로 자네가 그 분이 존재할 리
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지. 자네는 그 분의
신기한 예술과 면면들을 마음 속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거부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걸세.

그런데 진정으로 사리에 맞지 않으며, 어
렵고 고생스럽고 지독한 문제는 바로 그 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네. 우리가 그 분을 인
정하면 이 온 궁전과 나라가 마치 하나의 물
건인 듯 쉽고 편안하지. 이것은 이 주변이 저
렴하고도 풍요롭다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네.
만약 우리가 그 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
궁전만큼이나 어렵게 될 것이네. 왜냐하면 만
물이 이 궁전만큼이나 예술적이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그 저렴함과 풍요로움 둘 다 남
아있지 않을 걸세. 우리는커녕 그 누구도 우

리가 보는 사물들 중 단 하나조차 갖지 못하게 될 걸세. 자네, 이 줄에 매달린 통조림¹⁶을 보게나. 그 통조림이 그 분의 숨겨진 놀라운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십만원을 내줬다 해도 살 수 없을 것일세. 그렇지 만 지금은 오백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은가.

그렇네.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 어려움, 난제, 파괴, 또 불가능함은 그 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네. 만약 동일한 법과 중심을 따라 한 나무가 동일한 뿌리에서 생명을 얻는다면, 몇 천 개의 열매를 맺는 일이 그 중 단 하나를 맺는 것만큼이나 쉬워지는 셈이지. 만일 저 나무의 열매들이 각기 다른 법을 따르는 중심과 뿌리들로 연결된다면, 모든 열매 하나 하나가 나무 전체만큼이나 복잡해질 것일세. 그리고 만약 한 군대의 군장이 모두 동일한 중심에서, 같은 법을 따라 한 공장에서 제작된다면, 그것은 한 병졸의 군장만큼이나 간단하게 되네. 행여 병졸 개개인의 군장이 각기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다면, 군대의 군인들만큼이나 많은 공장들이 필요하게 될 걸세.

¹⁶ 여기서 통조림은 수박, 멜론, 석류나 코코넛과 같은 자비로운 선물을 말한다.

바로 이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이 정돈된 궁전, 멋진 도시, 발전된 국가 그리고 웅장한 왕국 속에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이 그 한 분이라면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가벼워진다네. 그리하여 우리가 보는 끝없는 저렴함, 풍요로움 그리고 관대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비싸고 복잡해져서, 혹 천하가 주어진다고 해도 얻어갈 수 없을 것일세.

열 번째 증거

이리 오게, 진리에 조금밖에 도달하지 못한 벗이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지도 15일이다 되었네¹⁷. 우리가 이 나라의 규칙들을 모르고, 그 왕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을 받게 될 것일세. 우리에게는 어떤 변명거리도 더 남아있지 않네. 그들은 우리에게 마치 유예 기간이 주어진 것처럼 15일간은 기회를 주지. 물론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방황토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네. 그저 이리

¹⁷ 15일은, 분별력이 생기는 나이인 15세를 가리킨다.

저리 돌아다니며, 이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균형이 잡혀있고 우아하고 교훈을 주는 예술품들을 어지럽히고 있을 수만은 없지. 우리가 그렇게 어지럽히는 것은 용납되지도 않을 것일세. 이 나라를 소유하신 그 분의 형벌은 정말 가혹하다네.

이로써 그 분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깨닫게나. 그 분께서는 이 거대한 세상을 궁전처럼 쟁기시고 하나의 상점처럼 경영하시네. 그 분은 이 나라를 마치 집인 것처럼 아무 것도 빠뜨리지 않고 경영하시지. 여기를 보게. 마치 그릇을 채우고 비워내는 것처럼, 그 분께서는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완벽한 질서정연함으로 채우시고 완벽한 지혜로써 비워내시네. 그 분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거대한 나라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를 정돈하고 치우시네. 또 그 분은 식탁을 차리고 정돈하는 것처럼 다양한 음식을 가져오시네¹⁸

¹⁸ '식탁'은 여름의 지표면을 가리킨다. 여름에는 그 자비로운 분이 차리신 수백 개의 제각기 다른 식탁들이 자비로움으로 넘치는 부엌에서 나온다. 야채밭들은 가마솥이 되고, 나무들은 각각 쟁반을 나르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식탁을 치우시고는 다른 음식을 가져오시지. 자네도 이것을 묵도하고 있고, 자네에게 지성이 있다면 그 위대한 분의 속내에는 후하디 후한 친절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일세.

또 보게, 여기 만물이 그 보이지 않는 분의 주권과 단일성을 증언하고 있듯이, 차량들처럼 줄지어 지나가고 무대의 막처럼 열렸다 닫히는 이 변화들 또한 그 분의 영속성을 입증하고 있네. 지나가버린 사물들은 그것들의 원인과 함께 사라지지. 그렇게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우리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다시 나타난다네. 그러니 그 사물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무한한 분의 작품인 것이네. 강물 위의 거품이 먼저 떠내려간 거품들과 매한가지로 빛난다는 사실에서, 그 거품들을 빛나게 하는 그 분은 영원하고 고결한 빛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 마찬가지로, 만물이 빠르게 변화하면서도 뒤따르는 사물들과 같은 색을 띠는 사실은 만물이 그 영속하는 분의 발현이자 장식이요 거울이자 예술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네.

열한 번째 증거

이리 오게, 친구여! 이제 앞서 말한 열 개의 증거를 합친 것만큼이나 강력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자네에게 보여주겠네. 여기로 와서 배에 타세¹⁹. 저 멀리 반도(半島)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 곳으로 갈 것이네. 이 신비스러운 세상의 열쇠들이 거기에 있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반도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 곳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네. 또 그들은 그 반도에서 오는 명령을 받들지. 자, 이제 가는군.

이제 반도에 도착했네. 보게,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군. 중요한 의식이 치러지는

¹⁹ ‘배’는 역사를 의미하고, ‘반도’는 예언자의 시대를 가리킨다. 이 시대의 어두운 해변가에서 홍진(紅塵)이 입힌 옷을 벗어버리고, 시간의 바다 위에 역사의 배를 저어 가서, 예언자의 시대가 도래한 아라비아 반도에 상륙해 예언자께서 계시는 영광스런 세계를 방문해본다. 그러면 우리는 예언자께서 세상의 한 쪽 끝부터 다른 쪽 끝까지를 밝히시고, 또한 시간의 두 얼굴인 과거와 미래를 밝히시며, 신앙의 부재 그리고 부패라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유일신의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데, 이 나라의 위인들은 모두 모인 것 같네. 자세히 들여다보게. 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한 분이 있군. 자, 가까이 가서 보세. 저 지도자를 눈여겨보아야 하네. 천 개도 넘는 빛나는 장식들을 달고 있는 저 분의 모습을 보게! ²⁰ 그 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군! 말투는 얼마나 부드러운가! 보름 동안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약간 알게 되었네. 자네도 내게서 알아가게나. 자, 저 분께서는 이 나라의 훌륭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그 분의 말씀인즉 “영광스런 왕께서 나를 여러분에게로 보냈노라.”고 하시네. 보게. 저 분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저 분이 왕께서 특별히 보내신 사자(使者)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군.

저 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비단 이 반도의 생명들뿐만이 아니며, 저 분이 특별한 방법으로 온 나라가 귀 기울이게 하는 점에 주목하게.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도 저 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

²⁰ 전문가들에 따르면, 천 개의 장식은 예언자 무함마드(평화가 그 분에게 깃들기를)께서 행하신 천 개의 기적이다.

도 듣고 있고, 심지어 산들까지도 저 분의 명령을 들으려고 자신들의 터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네. 나무들은 저 분께서 가리키시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저 분께서는 원하시는 곳 어디에서나 물을 끌어오시네. 게다가 저 분은 자신의 손가락을 마치 풍요로운 샘물처럼 눌러서, 생명이 가득한 물을 마시게 해주시지. 보게, 저 분께서 가리키시니 이 궁전의 높은 돔에 있는 소중한 등불이 둘로 갈라지는 군²¹. 저건 이 나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저 분의 임무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네. 그들은 마치 저 분이 보이지 않는 위대한 분의 진실한 대변인이자 주인의 사자(使者)이며, 그 분의 비밀을 발견한 자이고 그 분의 명령을 받드는 믿음직한 사절이라는 사실을 아는 듯이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네.

²¹ ‘소중한 등불’은 그 분의따라 둘로 갈라지는 달(月)을 의미한다. 마울라나 자미(Mevlana Cami)의 해설에 의하면, 일찍이 문자를 기록하신 적이 없는 그 분은 손가락으로 하늘에 알리프(alif, ا)를 쓰셔서 하나의 ‘40’과 두 개의 ‘50’을 만드셨다. 달이 갈라지기 전에는 40을 의미하는 문자 밌(miim, م)과 닮았고, 두 개의 초승달로 갈라진 후에는 50을 의미하는 문자 누(nuun, ن) 두 개와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저 주변에 있는 진실된 이들은 모두들 “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며 저분의 모든 말씀을 확인하지. 이 나라의 산과 나무들, 그리고 온 나라를 밝히는 저 큰 등불²²조차 “네, 당신의 말씀은 진실입니다.”라며 저분의 명령들을 받든다네.

나의 어리석은 친구여! 저렇게 빛나고, 위대하고, 진지하며, 왕의 보물 창고에나 있을 법한 천 가지의 장식을 단 분이 온 힘을 다하여 말씀하시고, 온 나라의 인사(人士)들이 그분의 말씀을 확인하는데도, 기적을 보여 주시는 그 분이 전하시는 왕의 본질이나 왕의 분부에 어떤 거짓이나 모순이 있겠는가?

만일 여기에 그릇된 이야기가 있다면, 이 궁전과 등불, 이 공동체의 진실과 존재를 모두 부정해야 할 것이네. 어디 한 번 여기에 반론을 펴 보게나.

²² ‘큰 등불’은 동쪽에서 지구 위로 돌아오는 태양을 의미한다. 이맘 알리가 자신의 팔을 베게 삼아 예언자께서 누워 계시는 바람에 오후 예배를 근행하지 못했는데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기적 덕분에 오후 예배를 근행하게 되었다.

이 증거의 힘이 자네의 반론을 산산조각
내어 자네에게 도로 던져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일세.

열두 번째 증거

이리 오게, 이제야 약간이나마 정신을 차
린 나의 형제여! 이제 11개의 증거 전부와 맞
먹는 힘을 가진 증거를 하나 더 보여주겠네.
여기에 있군!

모든 이가 놀라움이나 경외감을 갖고 주목
하는, 저 위에서 내려온 빛나는 계율²³ 을
보게. 천 개의 장식을 단 그 분이 그 계율 옆
에 서서, 그것의 의미를 모두에게 설명해주고
계시네. 그 계율의 문체는 모든 이들의 찬미
하는 눈빛을 끌어들이고 있군.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진지하고 중대한 문제들이 언급되어
있어서, 만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네.

²³ ‘빛나는 계율’은 꾸란을 의미하며, 그 위에 있는
‘서명’이란 꾸란의 기적적인 면모를 말한다.

그 계율은 온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궁전을 만드시고, 또 여러 신기한 것들 일으키는 그 분의 자세, 작품, 명령, 그 분의 본질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기 때문이지. 그 계율 전체에 거대한 서명이 있는 것처럼, 각 행과 각 문장에도 모방할 수 없는 서명이 되어있네. 또 그 계율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와 진실, 명령과 지혜는 그 분의 정신적 징표이기도 하네 요컨대, 저 귀한 계율은 그 위대한 분을 보여 준다네. 눈먼 자가 아니라면 그 분을 보게 될 것일세.

그러니, 나의 친구여,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면 이것으로 족하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보게나. 그 고집스럽던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의 증거들을 대하니, 난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군. 나 또한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나는 이 나라에 오로지 한 분의 완벽한 소유자가 계시고, 이곳에 단 한 분의 영광된 주인이 계시며, 이 궁전에는 오직 한 분의 아름다운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태양과 같이 명백하고 백주대 낮처럼 분명하게 믿게 되었네. 정신 나간 고집스러움에서 나를 구제해주었으니, 하나님께

서 자네를 보시고 흠족해하시길 바라네. 자네가 보여준 증거 하나 하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진실을 보여주었지. 하지만 그 증거들이 하나하나 제시되면서, 더욱 분명하고, 유쾌하고, 섬세한 지식의 차원과 함께 앞의 베일과 사랑의 창문도 열렸네. 그래서 난 기다리면서 귀를 기울인 것이라네.”

유일신론의 가장 위대한 진리와 신앙을 보여주는 이 비유적인 이야기는 이제 끝을 맺는다. 자비로우신 그 분의 자애와 꾸란의 축복, 그리고 신앙의 빛으로써, 하나님의 존재함에 대한 이야기에 나온 열두 개의 증거에 상응하는 열두 줄기의 빛을 보여드리고자 한다.

**성공과 올바른 인도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n